마을에서 공동체활동을 하는 주민들은 행복할까?

전지훈 _ 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원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대답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인류의 철학적 흐름이 함께한다. 최근 소득과 행복간 영향관계의 의문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체와 사회적관계가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과연 그러한지 충남 4곳의 마을기업의 대표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공동체안에서 비록 힘들지만 행복하다. 공동체에서 다양한 관계들과 의미있는 활동들의 결과는 성취감, 소속감, 자부심, 연대감, 인정 등의 인식을 통해 행복으로 구성된다. 결국 인간은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행복의 의미와 존재의 본질을 찾아간다는 점에 있어서 공동체 활동은 주민행복과 연관성이 있다. 〈집필자 주〉

행복이란 무엇일까?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자 소망한다. 인간의 주체적인 모든 행위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지만 욕구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이자 근본적인 원인은 행복이다. 따라서 행복에 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지성사(知性史)와 함께한 철학적 전통을 갖고 있다.

사실 고대 그리스, 특히 Aristotle에 있어서 행복은 공공의 善과 德에 관련이 있다. 윤리학에 관한 고전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따르면 행복은 그 자체로 自足性과 完全性을 가진 개념

열린충남(16년여름)3차.indd 82 2016-06-08 오후 6:54:09

으로 최고선을 지향하는 미덕 추구의 행위를 통해 도달할 수 있다. 여기서 최고선은 사회와 공동체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공동체의 목적인 공공선에 도달하는 상태이다. 이렇게 공공선을 추구하는 덕의 실천을 통해 행복은 획득될 수 있다는 이러한 개념은 중세까지도 지속되었다. 이후 개인에 대한 주체철학과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된 근대 계몽주의사상에 있어서 행복은 개인의 자유에 의해 추구되는 삶의 욕구충족이다. Rousseau는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행복을 위한 자유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고 Kant는 「실천이성비판」에서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의 달성과 선의지를 통한 만족감을 행복이라 보았다. 근대 자유주의에 의한 사유의 개인화는 Bentham과 Mill의 공리주의적 개념으로 행복논의가 확장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에 대한 사유의 흐름은 과연 사회에 속한 개인이 공동체와 집단적 맥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개인 스스로 행복감 형성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야기했다. 이러한 비판에는 Hegel과 Honnet 류의 주장처럼 타인과의 상호주관성을 강조하거나, MacIntyre나 Sendel처럼 사회적맥락과 공동체적 자아를 강조한 공동체주의자(Communitarian)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의들이 포진해 있다. 동양적 사고에서 유교의 전통에서도 개인의 행복은 주요한 물음이었다. 孔子의「論語」에서는 난세에 仁이라는 가치 실현과 仁政이라는 정치공동체를 통한 개인의 행복추구를 강조한다. 나아가 孟子는 혼자 즐기는 행복보다 사회와 백성이 함께 즐기는 행복을 더 높은 수준의 선으로 제시한다.

행복과 사회적 관계의 연관성

현대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행복은 정책수요자의 요구이자 그 자체가 행정학의 가치지향적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정부의 관심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현대국가의 기원인 「미국독립선언서」는 "모든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데, 그 권리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1974년 Easterlin이 일정수준의 소득이 충족된 국가에서 개인의 소득증가는 행복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후 행복경제학의 논의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학자들은 소득과 경제적 원인보다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행복의 영향요인은 사회적자본과 공동체활동과 같은 사회적관계이다. 우선 Hegel, Honnet 등은 주체간 상호작용과 인정투쟁으로 인한 자아정체성의 형성은 다양한 관계속에서 행복추구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Aristotle를 비롯한 공화주의의 사상은 목적론적 사고를 기반한 공공선의 추구가 인간의 행복이 사회적,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천명해왔다. 인문학적 사유뿐만이 아니다. Hamilton이나 Trivers 등에 의해 제기된, 협력에 의한 유전적 적응의 관계를 주목한 사회생물학의 자연과학분야의 연구는 이타주의적 성향, 협력, 사회성과 같은 요인들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생물학적 기제

열린충남(16년여름)3차.indd 83 2016-06-08 오후 6:54:09

이며 이는 자연선택의 진화론적 본성의 결과물로 본다.

이러한 주장들은 시장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우리사회에 있어서 OECD국가들 중 행복의 순위는 밑바닥이고 자살률은 최고수준을 보이는 작금의 실태 극복을 위한 유용한 함의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 이상 소득과 직업의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이 딛고 서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연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인정과 교류를 통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그리고 Putnam, Helliwell의 연구를 비롯한 사회과학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동체 활동과 행복 관계의 모습들

행복의 영향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있지만 필자는 결국 다음과 같은 질문들의 대답을 찾고자 했다.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나 마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과연 행복하다고 인식하는가? 만약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궁극적으로 개인의 공동체 활동과 행복간에는 연관성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의 답변을 듣고자 필자는 4월에 1달여 동안 충청남도에 있는 마을기업들을 방문하였다. 마을기업은 사회적 목적실현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있어서도 '마을 공동체' 중심의 활동을 강조하는 곳이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 중심으로 설립하고 지역단위 소규모 공동체의 조직형태이고 마을단위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방문한 충청남도의 마을기업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곳들로 당진의 '백석올미 영농조합법인', 예산의 '협동조합 느린손', 청양의 '꽃뫼영농조합법인'과 아산의 '고랑이랑 협동조합' 4곳이다.

마을기업들의 대표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공동체적 삶에서 행복의 전제는 공동체 활동에 대한 스스로의 바램과 욕구충족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의 전제가 있어야 본인의 활동을 통해 노동의 즐거움과 결과에 대한 성취감, 자부심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어떤 재화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이자 즐거움임을 대표들은 강조한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고 땀흘리는 동료와의 교감과 교류, 그리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했다는 보람은 삶의 만족과 자기존중감을 고양시킨다. 특히 '협동조합 느린손'의 사무국장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이 분포한 마을에서 다시금 삶의 의욕과 목적을 일깨우고 잊혀져가는 짚공예의 기술을 발판으로 자신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마을에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은 억만금과도 바꾸지 못한다"는 강조의 한마디는 행복

열린충남(16년여름)3차.indd 84 2016-06-08 오후 6:54:09

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다.

이러한 공동체 활동에서 소득은 개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정도로만 필요하다. 즉 생존을 위한 전제일 뿐이지 그 이상의 행복과 만족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아닌 것이다. 협동조합 느린손 사무국장은 짚공예품으로 인기를 얻은 것은 좋지만 너무 무리한 수량의 제품생산요구나 온라인판매 등의 확장은 오히려 생산자 조합원들에게 부담이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생산자 할아버지들의 소망은 짚공예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활동으로 인한 즐거움과 성취감, 그리고 함께 모여서 만들면서 얻는 교류와 대화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석올미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특근 수당 등의 급여시스템과 근무시간의 체계화나 활동의 사무화 등으로 인해 공동체에서 형성된 끈끈했던 정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다. 고랑이랑협동조합 대표 또한 소득이 많아지면 마을기업이 돈을 위한 사업에 종속되고 활동 자체가 자본으로 인식되며 공동체성보다 개인의 것에 집착하는 불행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역의 마을기업은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에 의해, 마을공동체를 위해, 사업을 조직하고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마을기업은 구성원이자 마을주민과의 상호교류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점은 구성원들이 공동체에서 관계속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밑거름이며 첫걸음이다. 마을기업의 구성원들은 마을의 주민들이 기업에 의해 소득을 창출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충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다. 이는 사회에 목적지향적 행위를 통해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미덕의 실천인 Aristotle의 행복(eudaimonia)에 근접한 행태이자 인식을 의미한다. 꽃뫼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맥문동을 최고가로 수매한다는 신뢰를 회사 운영이 어려워도 꼭 지키는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마을기업이 화장품원재료 납품, 해외판매 등 다양한 판로개척을 위해 고민하고 땀흘려 노력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꽃뫼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마을기업이란 마을 공동체의 자산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이익을 마을에 환원해야 진정한 마을기업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러한 마을기업의 진정성은 운영과 활동은 공동체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가장 큰 자산이며 마을기업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마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본질적 원동력인 것이다.

공동체 활동으로 행복하기 위한 주민의 바램

마을기업에서 활동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노동에 대한 의미와 보람,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상호교류를 통해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되는 행복은 이젠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마을기업이 성장하고 활동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게 된 다양한 이유중에 하나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이다.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농식품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의 지원사업이 없었으면 한과공장이나 교육관 같은 시설도 없었을 것이고 본인조차 이런 마을기업 활동자체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언급은 적절한 정부지원사업이 공동체활동

열린충남(16년여름)3차.indd 85 2016-06-08 오후 6:54:09

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대부분의 마을기업 대표들은 쇠락해가는 마을공동체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 복지, 교육, 환경개선과 같은 사업들은 여전히 마을에 유효하고 주민들의 행복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마을기업과 공동체를 위한 지원사업은 그 자체로도 의의가 있다.

하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모두 아쉬움과 한계를 토로한다. 의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려 해도 대부분 정부사업은 매칭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는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와 더불어 상금과 같은 재원에도 사용처와 금액을 모두 규정하여 제한적인 활용만 가능하다는 등의 비판의 말 처럼 정책집행에서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또한 대표들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지원사업에 있어서 정부는 자본만을 공통적 창구와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어서 모든 공동체 활동과 가치가 이에 따라 거꾸로 지원금과 돈에 맞춰 변화된다는 의식적 내재화를 우려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활동과 지원사업들의 한계들은 정부지원이 마을기업의 활동과 개인의 행복추구에 있어서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양산한다는 대표들의 발언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책 모색이 시급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들은 행복을 느끼고 있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시련도 많지만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겪는 결과고 함께 도전하고 성취할 때 보람과 성취감은 행복의 원천이다. 여기에서 소득은 '덤'인 셈이다.

행복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측정이 어렵다. 모두 각자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하지만 인간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지 않는 이상 타자와 어울리며 사회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사회적인 존재로 죽는다는 Aristotle의 명제는 분명히 행복은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진실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사회 밖에서 행복은 없으며, 시민의 덕성과 공공선을 향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Zamagni & Bruni

열린충남(16년여름)3차.indd 86 2016-06-08 오후 6:54:09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김금순대표와 인터뷰

「고랑이랑협동조합」 박사라대표와 인터뷰

「청송영농조합법인」 김춘복대표와 인터뷰

「협동조합 느린손」 박효신사무국장과 인터뷰

열린충남(16년여름)3차.indd 87 2016-06-08 오후 6:54:13